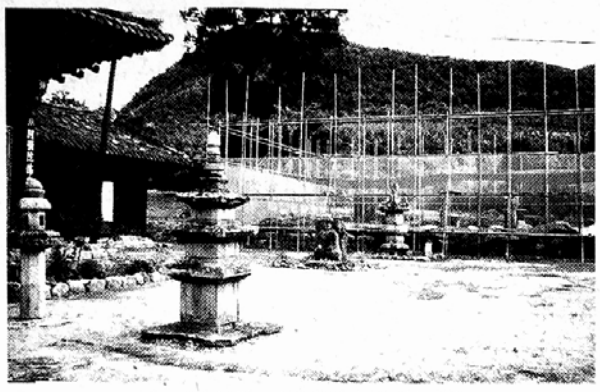


◇조사전 복원공사가 한창인 인각사 경내.

군위 인각사 성역화

대웅전 복원…지표조사후 종합정비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가 대웅전(조사전) 복원공사에 본격 착수하는등 성역화 불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군위군이 문화재청의 지도로 6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웅전 복원불사를 진행중(연내 완공예정)이며 조만간 조계종 문화부 발굴조사단등과 협의해 지표조사를 실시, 올해 안에 인각사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8월8일 오전 10시30분 일연스님의 711주기 다례재를 봉행하는 인각사 주지 상인스님은 "지자체와 인각사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이종백 前 군위군 의회의장)등과 협의해 도량 복원, 수련원 건립 등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성역화 불사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위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인각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군위군은 인각사를 관광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배양하는 사적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 충렬왕 때 보각국사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인각사는 신라 선덕여왕 11년(642)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보각국사 탑 및 비가 보물 제428호로, 인각사 경내가 경북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군위군 관계자는 화북댐 건설 예정지는 97년 6월 건교부가 약속한 그대로 인각사에서 3㎞ 상류 지점인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라고 밝혔다.

군위=김재경 기자

미륵정사 6년 통일발원 회향

◇통일발원도량인 하동 미륵정사 전경.

경남 하동 미륵정사(주지 묘연)는 17일 오전 11시 남북평화통일 발원회향대재를 봉행했다.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본받아 94년 7월17일부터 올 17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용맹정진기도를 계속해 온 묘연스님은 "굳이 제헌절을 택해 남북통일 발원회향대재를 봉행한 것은 남·북한의 모든 법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로 고루 효력을 발휘해 상생의 평화통일이 조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는 축사 및 법어,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만세 삼창, 육법공양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봉서사 영산작법 전수교육

지방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봉서사 영산작법의 전래 보존을 위한 연수교육 개강식이 11일 오전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에 자리한 봉서사 교육장에서 임명환군수를 비롯한 유정동 보존회장 영산회원 신도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봉서사 영산작법은 우리나라의 범패 시조인 진감국사가 신라 흥덕왕(8백30년)때 경학과 범패를 수학하고 돌아온 후 범패와 작법을 가르치면서 호남지방에서 매우 성행한 의식무용으로 봉서사를 중심으로 그 뿌리깊은 맥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지난 87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산작법은 이후 완주군에서 원형보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사업비 1천7백만원을 들여 교육과 공개행사를 통한 전수활동에 힘쓰고 있다. 김재경 기자

음성에 불교장묘시설 '정착'

충북 음성군이 불교 장묘시설의 시범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탑공원이 들어선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을 비롯 고심사, 용흥사, 음성납골공원 등과 함께 미타사가 대규모 납골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음성군이 납골시설 개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타지역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우려해 시설 유치를 꺼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마음선원·고심사 영탑공원 조성 '호평'
미타사·용흥사도 1만기 납골시설 추진
"묘지난 해결" 郡서 자금지원등 적극 유치

충북 음성 가섭산 미타사(주지 명안)는 9일 납골공원에 높이 108척(41m)으로 동양최대 규고인 지장보살 복장식을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이날 기중기로 들어 올린 대형 박스 5개를 가득 채운 복장물에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다라니, 경전, 금, 은, 칠보 등의 성물이 들어갔다. 점안식은 오는 10월 4일 대규모 문화행사와 함께 봉행된다.

미타사는 가섭산 아래 6만6천평의 부지에 높이 3m 높이의 납골(기단부에) 지장보살상 1만기를 봉안해 불심과 효심을 불러일으키는 불교 장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108척 지장보살상 뒤에 만불각이라는 법당을 세워 10㎝ 크기의 옥으로 만든 지장보살 1만불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천8백평 규모로 지난 86년 문을 연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탑공원은 현재 700여기의 영탑을 조성, 나머지 200여기를 분양받고 있다. 초등학교 소풍이나 가족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아 한마음선원은 진주·제주·중부경남(마산)지원에도 영탑공원을 조성해 분양중이다.

불교 전통 장례법인 부도탑을 최초로 현대화한 탑공원이 좋은 반응을 얻자 한국불교대원회 고심사도 95년 1천평 100여기 규모의 영탑묘원을 조성했다. 최근 납골시설 허가를 받아 낸 용흥사도 1만2천기의 영탑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음성군에 불교 납골시설이 잇달아 들어서게 된 것은 음성군의 적극적인 장묘제도 개선책에 따른 것. 음성군은 납골당 1천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사설 납공시설 및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에 나서는등 묘지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이 경부·중부고속도로에 인접, 수도권에서 가까운 잇점 때문에 납골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 납골시설 허가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총인구를 4천만으로 계산할 때 소요되는 영탑은 1천만기 정도. 영탑 등 납골시설을 이용하면 매장한 경우보다 여의도 면적의 108배 넓이가 남게 된다. 매년 여의도 크기만한 땅이 묘지가 되고 일부 계층이 호화분묘로 말썽을 빚는 등 묘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교 화장제에 기초한 납골시설이 대안이 될 것이란게 장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음성=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9일 복장식을 거행한 미타사 108척 지장보살상(뒤쪽).

개신교인 사찰납골당 반대

극락정사 건립 나서자 "혐오시설" 주민 선동

전남 보성 극락정사가 사찰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신교인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락정사는 지난 6월 전남도와 보성군으로부터 보성군 겸백면에 2만3천여평 규모의 사찰 및 납골당 건립 허가를 받았으나 몇몇 개신교인이 일부 지역주민을 선동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주민과 사전 협의없이 혐오시설을 세우려 한다"며 반대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극락정사 주지 용담스님은 "허가신청을 내기 전에 7차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군 개발위원회는 물론 지역의 각급 기관장 회의 때에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얻었다"며 "이렇게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통과된 사항을 놓고 이제 와서 몇몇 개신교인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극락정사가 추진중인 납골당은 현재 설계를 모두 마치고 군의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영동 천국사 낙성
"100만 관음보살 조성"

충북 영동에 소재한 관음종 천국사(주지 해정)는 12일 낙성 및 비로자나불(360㎝) 점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관음종 종정 혜웅, 총무원장 홍파스님과 심규철 국회의원, 박완진 영동군수, 유봉렬 옥천군수 등 사부대중 2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해정스님은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의 낙성식을 갖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호 덕택이었다"면서 "천국사를 100만 관음보살상을 모신 중부권의 중심 기도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043)742-5966

영동=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법주사 수행학교 개설

제5교구 속리산 법주사(주지 지명)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3차에 걸쳐 불교문화 체험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여름수행학교를 개설한다. 여름수행학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초등부 120명(7월21일~23일), 청소년부 350명(7월24일~27일), 일반부 110명(8월4일~7일) 등 모두 580명이다. 신청마감은 20일. (043)543-3615

태고종

사정위원에 동우스님

인곡 총무원장 스님은 연운 사정원장 스님의 제청을 받아 5일자로 동우스님〈서산 송덕암 주지·사진〉을 중앙사정위원에 임명했다.

동우스님은 1947년 서산生으로 58년 남허스님을 은사로 수덕사로 출가했으며 충남교구 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법규위원 등을 역임했다.

천태종

8월 1일부터 하안거

불기 2544년 경진년 신도 하안거가 8월1일부터 30일까지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각 말사, 회관에서 일제히 결제식을 갖고 한달간 기도정진에 들어간다. 이번 하안거에 들어갈 신도들은 낮에는 직장이나 가사일을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사찰에서 철야 기도정진을 한다.

진각종

서울교구 체육대회

서울교구 신교도 화합의 장이 될 서울교구청 소속 신교도 체육대회가 17일 경기도 다산 정약용선생 생가 옆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회 째를 맞이하는 체육대회는 4개팀으로 나누어 축구, 피구,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와 심인당별 장기자랑을 한다.

관음종

태허대종사 열반 21주기

창종주인 태허대종사 열반 21주기를 맞아 25일 오전 11시 총본산 묘각사에서 추모 다례법회를 봉행한다. (02)763-5851

대한법화종

청룡사 통일의 종 건립

충주 청룡사(주지 덕륜)는 16일 오전 11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의 종' 불사 추진 및 대웅전 복원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대법회에는 종정 구암스님과 총무원장 법홍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한다.

새로 주조되는 '통일의 종'은 무게가 1천관으로 용걸이를 포함한 전체 종고가 1.67m, 폭 0.9m로 삼국통일을 실현한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의 외형을 축소한 모양으로 전통적인 범종 양식에 따라 주조, 2002년 완성될 예정이다.

법륜종

창법 총무원장 20일 취임

지난 5월 29일 제6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덕산 창법 스님〈사진〉의 취임식이 20일 오전 11시 충남 논산 노성면 화곡리 지장암에서 개최된다. 창법스님은 현재 법륜종 논산시불교시암연합회장, 논산시 경승실장, 대전교도소 교화위원 등을 맡고 있다. (041)733-5629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비용은21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회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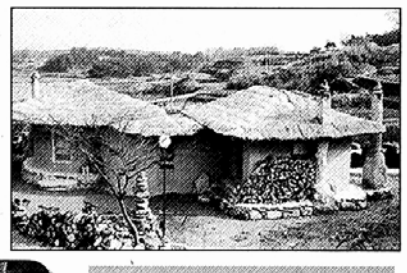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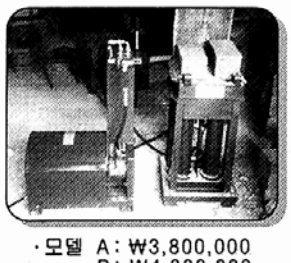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ㅣ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 檀단 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연밥(연꽃씨)을 드셔 보셨나요?

그동안 이용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본제품을 이용해주신 분들과 이번 기회를 통해 구입하신분에 한하여 연락주시면 연꽃씨(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이며 일주일만 물에 담가 놓으면 싹이 틉니다.) 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연밥은 풍부한 녹말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아미노산 조성분인 리신이 상당량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에서 연꽃장식이 출토되었고, 불교전래 이전의 고대인도에서도 이미 다산(多産)이나 생명연장(生命延長)의 상징 또는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진흙속에서도 청순한 꽃을 피우는 연(蓮)을 극락정토(極樂淨土)라하는 견해도 있어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味甘無毒養氣力
除百疾補五臟
止渴益神安心
多食令人喜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기력을 돕는다
인체의 온갖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오장을 보호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정신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 - 동의보감 탕액편 중에서 - -

각각의 포장속에는 연밥의 원형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밥의 속심과 겉껍질 및 속껍질이 손수 수작업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충분히 물에 불리시어 생식을 하시거나 사찰이나 각 가정에서 콩개념으로 넣어드시면 밤이나 고구마같은 연밥의 독특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품안내	3KG	36,000원	각각 포장 판매 〈택배 포함 가격〉
	5KG	55,000원	
	10KG	105,000원	

예금주 : 기업은행 (377-009547-04-018) 인창 물산
농 협 (217028-52-013565) 여진구

구입문의
인 창 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73-25
(031)907-2567, 906-5691-2